

鄭勳의 '迂濶 意識'에 대한 再考

오선주*

<차례>

- 1. 문제 제기
- 2. '우활'의 개념과 쓰임새
- 3. 「우활가」에 나타난 우활 의식
 - 3.1 '우활'의 형상화 양상
 - 3.2 '우활 의식'의 의미 지향
- 4. 마무리

1. 문제 제기

이 글은 水南放翁 鄭勳(1563~1640)의 「迂濶歌」에 나타난 '迂濶'의 의미와 여기에 내재된 의식의 본질을 재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정훈의 시가¹⁾에 대한 연구는 河聲來²⁾와 朴堯順³⁾에 의해 자료가 소개

된 이래로 비교적 활발하 논의되어 많은 성과들이 제출되어 있다.⁴⁾ 특히 그의 '우활'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시각에서의 고찰이 축적되어 이제는 그것을 재고한다는 것 자체가 진부한 듯이 여겨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살펴볼 때, 좀더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우선 「우활가」의 해석 기반이 되는 '우활'이라는 용어와 이를 활용한 정훈의 의도에 대한 검토는 생략한 채, 성급한 일반화를 시도함으로써 말미암아 작품의 본질을 오히려 모호하게 해 버린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작품 전반에 걸쳐 '우활'을 무려 19회나 반복하여 표방한 바와

亨叙가 지은 「祭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2) 河聲來, 歌辭文學의 새 巨峰 - 鄭勳의 〈水南放翁歌〉 解題 및 評價, 『文學思想』 8, 文學思想社, 1973, 5월호.

3) 朴堯順, 「鄭勳과 그의 詩歌攷」, 『崇田語文學』 제2집, 崇田大學校 國語國文學會, 1973.

4) 정훈의 시가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이상원, 「정훈 시조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11집, 우리어문학회, 1997, 「사족층의 분화와 정훈의 시가」, 신영명·우응순 외,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류속영, 「鄭勳 문학의 현실적 토대와 작가의식」, 『國語國文學』 第35輯, 國語國文學會, 1998.

권순희, 「17세기 남원지방 재지사족의 동향과 정훈의 시가」, 『어문논집』 39, 민족어문학회, 1999.

金文基, 鄭勳의 〈憂喜國事歌〉 고찰, 『국어교육연구』 제31집, 국어교육학회, 1999.

한창훈, 「17세기 鄉班階層 詩歌의 形成 : 朴仁老·鄭勳을 중심으로」, 『시가요육의 가치론』, 월인, 2001.

최상은, 「鄭勳 歌辭에 나타난 가문의식과 문학적 형상」, 『韓民族語文學』 第45輯, 韓民族語文學會, 2004.

강경호, 정훈 시가에 반영된 현실 인식과 문학적 형상 재고, 『韓民族語文學』 第49輯, 韓民族語文學會, 2006.

이승남, 17세기 강호가사의 전환기적 서정 - 정훈의 〈용추유영가〉와 〈수남방옹가〉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28집, 우리어문학회, 2007.

나정순, 「17세기 초의 사상적 전개와 정훈의 시조」, 『時調學論叢』 第27輯, 韓國時調學會, 2007.

* 전북대학교

1) 『水南放翁遺稿』(승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에 『聖主中興歌』, 『嘆窮歌』, 『迂濶歌』, 『龍林遊詠歌』, 『水南放翁歌』 등의 가사 5편과 시조 20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한시 4題 9수, 崔蘊·盧亨泰·盧亨夏의 次韻詩 20수, 朴世采가 撰한 「水南放翁鄭公家藏行蹟」과 「孝子水南放翁鄭君墓碣銘并序」, 朴弼周가 쓴 「水南放翁遺稿序」, 盧

결사 대목에 나타난 언어적 형상이 일치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오컨대 “현실 문제를 정신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⁵⁾로서의 의도와 醉하여 내 迂濶 닛다의 의미가 서로 상충된다. 말하자면 이 부분을 문면 그대로 탄식 내지는 체념적 의식의 발로⁶⁾로만 보기에선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강경호의 논의가 주목된다. 그는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반어적 어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후, 외면적 현실 추구와 내면적 이상 추구의 사이에서 후자를 지향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재해석하였다.⁷⁾ 이러한 그의 논의는 그 동안 간과하며 소홀하게 다룬 부분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열었다 하겠다. 이에 의미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월’의 쓰임새와 여기에 작용하는 수사적 원리에 대한 검토가 긴요하다.

다음으로 정훈의 ‘우월’과 그 의식적 면모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지나치게 신분계층, 곧 출사의 경력이 전혀 없는 향촌사족이라는 측면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점이다. 한 작가의 의식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외적 자료들을 상호 연계하면서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월’이란 용어는, 그 활용 빈도와 의미 부여의 크고 작은 편차가 발견되지만, 관료문인들의 시문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⁸⁾ 그러므

5) 한창훈, 앞의 글, 270쪽.

6) 앞의 이상원, 류숙영, 한창훈, 최상은 등의 글이 대체로 이러한 의미적 측면에서 논의·서술되어 왔다.

7) 강경호, 앞의 글, 216~217쪽.

8) 그 양이 방대한 관계로, 정훈과 비슷한 시기의 관료문인인 金尙容(1561~1637)의 작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거의 다 빠진 흰머리 쓸쓸히 빛으니/ 평생의 우월한 계획 오히려 처음과 같네// 애써 옛 도를 배웠건만 쓸 데 없음 알고/ 부질없이 등불 아래서 옛 책 읽네 短髮蕭蕭雪滿梳 生平迂計尙如初 辛勤學古知無用 謾向燈前讀舊書”(夜讀書感舊書懷, 『仙源遺稿』上.)

로 ‘우월’의 문제를 “鄕村社會내에서 정치적 경제적 위치가 미미했던 鄕班階層들의 일반적인 의식”⁹⁾으로 바라본 편향적 시각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관인과 구별되는 신분적 층위보다는 현실적인 상황, 곧 현재의 삶과 환경 및 제반 조건을 포괄하여 작자가 겪는 상황에서 보다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먼저 ‘우월’의 개념과 그 쓰임새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월가에 작용하고 있는 내적 원리를 검토함과 동시에 정훈이 담지한 ‘우월 의식’의 본질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2. ‘우월’의 개념과 쓰임새

‘우월’의 의미는 한 마디로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 문학 작품을 살펴다보면, 긍정·부정적인 의미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특수한 가치 개념을 함축한 말로까지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월’이 지극히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속성을 지닌 용어임을 시사한다. 이에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의미의 굴절¹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사전적 의미는 『우리말 큰사전』¹¹⁾에 세 가지 뜻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를 재구할 수 있는 용례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한창훈, 앞의 글, 272쪽.

10) 여기서 말하는 ‘의미의 굴절’이란 글감이나 표현이 사전적 의미나 일상적 의미와 연관을 유지하면서 변용되어 사용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희찬, 「意味의 屈折과 複層, 그리고 構造」(윤영옥 외, 『한국시가 넓혀 읽기』, 문창사, 2006.), 365~371쪽 참조.

11)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주)어문각, 1992.

① 곧바르지 않고 에둘러서 실제와는 관련이 없음 : 子路曰 衛君 待子而爲政 子將奚先 子曰 必也正名乎 子路曰 有是哉 子之迂也 奚其正(迂謂遠於事情 言非今日之急務也(朱子 註 : 필자 첨부) 子曰 野哉 由也 …… 君子於其言 無所苟而已矣¹²⁾)

② 사리에 어둡고 덩돌함 : 元入 兵馬 | 潭州 | 를 터야 城을 흐마 앉일 저지 尹穀이 두 아드를 冠禮하거늘 尼미 닐오디 오느리 엇단 時節이완디 이런 오활흔 일 흐는다 흐야늘 尹穀이 닐오디 아히돌히 冠帶하야 先人을 地下에 가야 보기 흐노라¹³⁾

③ 주의가 부족함 : 婦人인 懶란 散산 계집이 게으르고 오활흔다¹⁴⁾

①의 자료에서 子路는 孔子의 말씀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迂'字 한 글자만으로 일축하고 있어 그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朱子는 그의 註에서 밝히고 있듯이, '迂'를 '遠於事情'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좀더 상고해 보면, 주자의 풀이는 『史記』의 "迂遠而濶於事情"¹⁵⁾이라는 어구와 일맥상통하며, 더 나아가 이 어구는 「孟子集註序說」에도 똑같이 재인용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주자가 司馬遷의 풀이를 그대로 수용했음을 뜻한다. 즉 '迂遠而濶於事情'을 분리시키면 '迂遠於事情'과 '迂濶於事情'이라는 두 어구가 도출되는데, 이 중에서 전자를 취한 것이다. 이로 보건대 '迂'는 기본적으로 '迂遠', '迂濶' 등으로 활용되며, 주자의 해석인 '非今日之急務'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②의 자료 또한 주자의 해석적 범주에 속한다. 즉 성이 함락되려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두 아들의 관례를 거행하는 尹穀의 행위는 얼핏 보더라도 '非今日之急務'에 해당한다. 이것은 주자의 해석이 '우활'이란

용어가 우활로 정의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전제 요건임을 시사한다.

사정이 이렇다고 할 때,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위의 자료들의 상관관계이다. 특히 사전적 의미가 변별되는 내적 요인과 그에 따른 쓰임새에 대해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의미의 변별은 바로 '우활'로 지칭되는 指示的 對象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 ①에서 자로가 '우활'하다고 지칭하는 대상은 다른 아닌 공자의 말씀[言]이고, ②에서는 윤곡의 행위[行]이다. 반면에, ③에서 '散'자는 흔히 '漫'자와 조합을 이루면서 사람의 내면적 성격을 묘사하는 데 주로 쓰인다. 따라서 이때의 지시적 대상은 계집의 마음[心] 혹은 정신에 해당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이때의 對象者는 모두 공자·윤곡·계집 등과 같이 상대방, 곧 發信者가 아닌 受信者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우활'은 상대방의 언행과 마음가짐이 '今日之急務'에서 벗어난 상황임을 지적하는 말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종합하자면, 특정 상황에 영합하지 못하는 상대방의 전반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그 모습을 비하하거나 조롱할 때 즐겨 사용되는 말이 바로 '우활'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 의미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의 공자와 윤곡의 반론에서도 드러나듯이, 입장이나 의도에 따라 그 의미가 굴절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활'의 지시적 대상자가 상대방이 아닌 발신자 자신일 경우가 있는데, 단적인 예로 李德懋(1741~1793)의 말을 들어보자.

사람이란 변할 수 있는 것일까? 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변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예컨대 어려서부터 장난을 하지 않고 망령되고 허탄하지 않으며 성실하고 삼가며 단정하고 정성스러운 사람이 있었다. 장성하자 어떤 사람이 권하여 말하기를, "너는 세속과 화합하지 못하니 세속에서 너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마침내 그도 옳다고 여겨, 입으로는 저속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몸으로는 경망하고 부화한 일을 행하였다. 3일 동안

12) 子路, 『論語』第十三.

13) 尹穀赴池, 『三綱行實圖』忠臣圖.

14) 迂踈類, 『漢清文鑑』卷八.

15) 孟子荀卿列傳, 『史記』卷七十四.

이와 같이 하였으나 괴롭고 기쁘지 못해서 말하기를, “내 마음은 변할 수 없다. 3일 전에는 내 마음이 든든한 듯하더니 3일 후에는 마음이 텅 빈 것 같다.” 하고는 드디어 처음으로 되돌아갔다. 이욕을 말하면 기운이 없어지고, 산림을 말하면 정신이 맑아지며, 문장을 말하면 마음이 즐겁고, 도학을 말하면 뜻이 정돈된다. 完山 李子(이덕무 자신)는 옛 道에 뜻을 두어 우환하다. 그래서 산림·문장·도학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 나머지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 들어도 마음에 달갑게 여기지도 않으니 대개 그 바탕을 전일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¹⁶⁾

위의 글에서 이덕무는 스스로 자신이 ‘우환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인 의도와 의미는 그가 제시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하다. 우선 이 인물은 엄격한 도학적 이념에 충실하고자 한 자이고, ‘어떤 사람’은 세속인이다. 그리고 ‘세속과 화합하지 못하니 세속에서 너를 용납하지 않을 것’은 앞서 살펴본 ‘우환’과 동계의 의미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말에는 이 인물의 도학적 삶이 우환하다는 조롱의 어조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 한편 그의 말대로 세속과의 화합을 시도하다가 불과 삼 일만에 그만두고 있는데, 그 이유로 ‘마음은 변할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세속적 삶보다는 자신이 견지한 도학적 삶이 더 나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른바 對他的 優越感의 노출이다.

그럼 ‘우환’을 자처하고 있는 이덕무의 경우는 어떠한가? 요점부터 말하자면 위의 인물과 동류이다. 즉 그의 말은 ‘옛 道에 뜻을 두어 우환하니, 그 바탕을 전일하게 하고자 한다.’와 같이 정리된다. 이를 좀더 요약하면 ‘옛 道를 전일하게 하니 우환하다.’로 재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환

하다’고 하는 자기비하적 언급은 다분히 방어적으로 다가온다. 다시 말해서 ‘우환하지 않다’가 본 표현이며, 세상이 비록 조롱할지라도 세속적인 ‘이욕’에 영합하지 않는 울곧음으로 변함없이 ‘산림·문장·도학’의 세계와 삶을 지향하겠다는 의식이 내재적 의미이다. 결국 위의 글에서 이덕무는 자신의 관점이나 삶과 다른 성격의 것을 대응적으로 제시한 다음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우환’의 개념을 방어적 어법으로 활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¹⁷⁾

이상의 논의로 미루어 볼 때, 지시적 대상의 차이 이외에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우환’의 쓰임과 의미가 변별·변모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환’이 발화자 자신으로 개인화·주체화되었을 때에는 흔히 “현실에 대한 고답적인 정신적 우월감”¹⁸⁾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 굴절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변모의 내적 원리로 방어적 수사법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 「우환가」에 나타난 우환 의식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우환가는 정훈 스스로 ‘우환’을 자처하며 지은 작품이다. 그런 만큼 이 작품에서의 ‘우환’의 쓰임과 의미 또한 일련의 비유적 표현과 방어적 어법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

16) 人可變乎 曰有可變者 有不可變者 若有人於此 自孩提不戲遊 不妄誕 誠慎端慤 及其壯人勸之曰 爾不偕俗 俗將不容爾 遂然之 口談鄙俚之言 身行輕浮之事 如是者三日 蹙然不招曰 吾心不可變也 三日之前 吾心充然 三日之後 吾心枵然 遂復其初 談利慾則氣墮 談山林則神清 談文章則心樂 談道學則志整 完山李子志古而迂 喜聞山林文章道學之談 其餘不欲聞 聞亦心不服 蓋欲專其質者也(『自言』, 『靑莊館全書』 卷之四.)

17) 이러한 현상은 한시 작품에서도 확인되는데, 대표적으로 習齋 權擘(1520~1593)의 한시 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록 내 몸을 비웃을 수는 있지만/ 어찌 내 마음을 기롱하리오// 내 마음 실로 우환한 것 아니니/ 부귀가 어지럽히지 못하고// 내 마음 실로 졸렬한 것 아니니/ 빈천이 침범하지 못하네// 우환한 듯하고 또 졸렬한 듯하니/ 알아주는 이 적음이 당연하다 ‘雖能笑我身 豈得譏我心 我心實非迂 貴富不能淫 我心實非拙 貧賤不能侵 似迂復似拙 宜哉少知音’”(『迂拙吟』, 『習齋集』 卷之二.)

18) 권순희, 앞의 글, 212쪽.

는 것이 그의 의식 세계를 이해하는 요체가 될 듯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우활'의 쓰임과 형상화 양상을 구명하여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서 '우활 의식'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1 '우활'의 형상화 양상

우활가』는 전체 47行 94句로 이루어진 작품으로서, '우활/오활'이 사용된 회수는 총 19회이다. 특히 '迂濶도 迂濶홀샤 그레도록 迂濶홀샤'라는 구절이 세 차례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체로 삶의 노정이나 그에 상응하는 표현과 결합·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활'의 잦은 출현과 형상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시사한다. 바로 작품의 첫머리에서부터 그러한 방향에 알맞도록 서술되고 있다.

[I] 엇지 삼긴 몸이 이대도록 迂濶호고
 迂濶도 迂濶홀샤 그레도록 迂濶홀샤
 이바 벗님네야 迂濶호 말 들어보소

이 서사 대목을 정리하면, (화자의)'몸'='迂濶'의 동의적 관계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대도록'과 '그레도록'의 표현이 이 관계를 심화·강화시켜준다. 이 관계식을 고려하면, '迂濶호 말 들어보소'는 '엇지 삼긴 몸인지 들어보소'와 같이 재구성된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은 결국 화자 자신의 몸 상태, 곧 언행과 마음가짐을 포괄한 전반적인 삶의 양상을 해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활'이라는 용어를 비유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대체 '엇지'된 삶인지, 그의 '迂濶호 말'을 본격적으로 들어보자.

[II]① 이 내 저머신 제 迂濶호미 그지업서

이 몸 삼겨나미 禽獸에 다르므로
 愛親敬兄과 忠君弟長을 分內事만 헤엿더니
 흔 일도 못되어 歲月이 느껴지니
 平生 迂濶은 날 땀와 기러간다
 아춤이 不足흔들 저녁을 근심호며
 一間 茅屋이 비 시는 줄 아뉘던가
 懸鶉 百結이 붓쓰려움 어이 알며
 어리고 미친 말이 늬 무일 줄 아뉘던가
 迂濶도 迂濶홀샤 그레도록 迂濶홀샤

이 대목은 첫 번째 삶의 모습, 곧 젊은 시절에 형성된 것으로서 인간이 지녀야 할 가치인 윤리덕목과 관련을 맺고 있다. 말하자면 '禽獸'와 구분되는 '愛親敬兄과 忠君弟長'을 '今日之急務'로 여긴 삶인데, 이는 '흔 일'과의 의미적 관계에 의해 더욱 부각된다. '分內事만 헤엿더니'에서 '-만'에 주목할 때, '흔 일'은 '愛親敬兄과 忠君弟長'을 제외한 나머지 일들 중의 하나를 뜻한다.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말하면 '아춤 저녁의 不足', '一間 茅屋', '懸鶉 百結', '어리고 미친 말' 등과 대비되는 풍족한 음식, 대궐 같은 집, 비단 옷, 巧言 등의 세속적 이욕에 속하는 일이다.

반면 화자는 이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 '歲月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不足흔들 근심호며', '붓쓰려움 어이 알며' 등의 언급처럼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윤리덕목을 당위로 여기고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른바 청빈한 도학자적 면모를 '平生'토록 추구한 삶이다. 바로 이것이 화자의 첫 번째 삶인데, 이를 '迂濶호미 그지업서'와 같이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두 번째 삶을 진술한 다음 대목에서도 나타난다.

[II]② 春山의 곳을 보고 도라울 줄 어이 알며
 夏亭의 즘을 드러 썩 썩 줄 어이 알며

秋天의 들 마자 밤드는 줄 어이 알며
 冬雪에 詩興 계워 치움을 어이 알리
 四時 佳景을 아브란 줄 모로라
 末路에 브린 몸이 므스 일을 스팀홀고
 人間 是非 듯도 보도 못흐거든
 一身 榮枯 百年을 근심홀가
 迂濶도 迂濶홀샤 그레도록 迂濶홀샤

이 대목은 '末路에 브린 몸', 곧 만년에 형성된 삶으로서 江湖之樂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四時 佳景'에서 발견되는 화자의 정서적 감흥은 孟思誠의 江湖四時歌 를 연상케 한다.¹⁹⁾ 이를테면 '산의 곳을 보고' 귀가를 잊는 봄의 한가로움, '亭의 즈'드는 여름의 서늘함, '天의 들 마자' 노니는 가을의 消日함, '치움'을 잊는 겨울의 詩興 등이 그것이다. 그런 한편 여기에 나타난 내·외적 감흥은 모두 심적·신체적 평안과 여유의 표출로서, 그러한 일련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형용한 것이다. 이 만족감은 '므스 일을 스팀홀고'의 반문에서 더욱 심화된다. 즉 '人間 是非'가 이르지 않는 삶의 터전과 '一身 榮枯'를 근심하지 않는 정서적 즐거움, 바로 강호지락 이외의 일은 관심 밖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강호에서 유유자적하는 閑居의 삶인데, 이 또한 '우활'한 것으로 규정·수렴되고 있다.

이즈음에서 이상의 논의를 잠깐 점검해 보기로 하자. 어려서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화자의 삶은 “은거적 도학자”의 전형적인 형상이다. 그런데 화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우활'론을 펴고 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실 이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실질적인 삶의 행적과 발화 사이의 어긋남에서 드러나듯이, 아이러니 그

자체인 “반어적 어법”으로서 강한 긍정이다. 그렇다면 화자가 이런 '우활'론을 피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단서는 당대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Ⅱ〕③ 아춤의 누잇고 나죄도 그러흐니
 하늘 삼긴 迂濶을 내 혈마 어이 흐리
 그레도 애둡도다 고쳐 안자 싱각흐니
 이 몸이 느저 나 애돌은 일 하고 만타
 一百 번 다시 죽어 넷 사람 되고라자
 義皇 天地에 잠간이나 노라 보면
 堯舜 日月을 저그나 뵈올 써술
 淳風이 已遠흐니 儉薄이 다 되거다
 汗漫호 情懷을 놀 드려 니르려노
 泰山의 올라가 天地 八荒이나
 다 브라 보고제고 鄒魯에 두르 거러
 聖賢 講業호던 자취나 보고제고
 周公은 어되 가고 꿈의도 비잔노고
 已甚호 이 내 衰를 슬허호다 어이 흐리
 萬里에 눈 쓰고 太古에 뿔즐 두니
 迂濶호 心魂이 가고 아니 오노왜라
 人間의 호자 씨여 놀 드려 말을 홀고
 祝鮀의 佞言을 이제 비화 어이 흐며
 宋朝의 美色을 얼근 늦춰 잘 홀런가
 右詹 山草實를 어되 어더 머그려노
 무이고 못고이미 다 迂濶의 타시로다

화자는 자신의 삶, 곧 '우활'을 애당초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운명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운명론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까지 형성된 삶을 한순간에 천명으로 돌리기에는 그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마음이 쓰이는 '애돌은 일'이 있는데, 화자

19) 江湖에 봄이 드니 …… 한가희움도 亦君恩이샷다, 江湖에 녀름이 드니 …… 서늘희움도 亦君恩이샷다, 江湖에 7올이 드니 …… 消日희움도 亦君恩이샷다, 江湖에 겨월이 드니 …… 침지 아니희움도 亦君恩이샷다

는 이를 '이 몸이 느저'진 데서 찾고 있다. 이때의 늦게 태어남은 곧 당대 현실이 혼탁함을 암시한다. 요컨대 '羲皇(上人)'과 '堯舜'의 德化인 '淳風'이 미치지 못하여 '儻薄'하게 된 세상ियो, '孔孟'과 '周公' 등의 성현이 '講業'하던 자취'를 꿈에서도 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동시에 이것은 화자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즉 '넋 사람'이 되고자 '泰山의 올라가'고 '鄒魯에 두르 거러' 보는 등 부단히 노력했지만 '儻薄'하고 '已甚'은 이 내 衰²⁰⁾만 볼 뿐이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애들은 일'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已甚'은 이 내 衰를 슬허하다 어이 흐리'와 그 뒤에 이어지는 '萬里에 눈 쓰고 …… 아니 오노왜라'가 가진 심리 상태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전자는 달리 표현하면, 성현의 자취만을 따르느라 '歲月이 느저'((II)①)짐이 당연하다로 재구성될 수 있다. 한편 후자는 자신이 추구한 성현과의 정신적 교감 내지는 합일을 의미한다. 부연하자면 '迂濶'은 心魂을 앞서 정리한 화자의 '은거'적 도학자의 心魂으로 치환할 때, 이것이 '가고 아니 오노왜라'는 바로 '太古'에 '뜻'과 합일의 상태를 이루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합일은 후술되고 있는 '人間에 호자 찌여'의 고양된 정신적 면모에 의해 더욱 확장된다. 그러므로 전·후자의 두 심리 상태는 결과적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신적 우월성을 부각시킨 내용들이다.

한편 '佞言'·'美色'·'山草實' 등은 세속적인 요소들인데, 화자는 이들과의 절연 내지는 관심 없음을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II)①의 '아춤이 不足'은 …… 무일 줄 아뉘던가'와 동계의 의미적 표현이다.

20) 간행된 기존의 논의와 자료에서는 모두 '襄'으로 기입하고 있다. 그러나 '衰'가 올바른 표기인 듯하다. 『水南放翁遺稿』(승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를 살펴보면, 俗字 내지는 異體字로 필사되어 있어 '襄'과 '衰'의 엄격한 분별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먼저 "淳風이 已遠'은 儻薄이 다 되거다"에서 늦게 태어난 것에 대한 심사를 '儻薄'으로 비유하고 있으므로 "已甚'은 이 내 衰를 슬허하다 어이 흐리" 또한 이에 걸맞은 비유의 '衰'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볼 경우, 후술되고 있는 '이제 비화 어이 흐며'와의 연결도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 마지막 구절 역시 청빈한 도학자적 면모와 상통하는 내용이다. 이에 '무이고 못고임'으로 함축된 세속과 화합하지 않음은 그 기저에 자신의 정신적 우월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성현의 덕화에서 멀어지고 있는 당대의 현실이 바로 '애들은 일'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우환'론을 피력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III] 이리 혜오 저리 혜오 다시 혜니
一生 事業이 迂濶 아닌 일 업벼와라
이 오환 거느리고 百年을 어이 흐리
아희아 잔 그득 부어라 醉'은 내 迂濶 닛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사 대목을 보자. 여기서 마지막 구절을 제외한 나머지는 '一生 事業', 곧 지금까지 전개된 삶이 모두 '우환'하며, 이 또한 운명인 것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마지막 구절에 대한 해석이다. 일단 문면 그대로 풀이하면, '닛다'가 주된 의식이며, 술이 그 상태를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으므로 다분히 체념적 의식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화자 스스로 범주화하고 규정한 '우환'은 자신의 삶 그 자체라는 점ियो, 둘째는 반어적 어법을 기반으로 그러한 삶을 적극 긍정·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문면 그대로의 풀이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자칫 自祭文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바,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선다. 즉 해석의 초점은 '닛다'가 아닌 '내 迂濶'로 수렴되어야 한다. 결국 '醉'은 내 迂濶 닛다'를 '醉'은 내 迂濶 닛지말다'와 같이 반어문으로 재구한 후, "술에 취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우환'"²¹⁾임을 선언한 정신적 우월 의식으로 풀이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럴 경우, 자신

21) 강경호, 앞의 글, 217쪽.

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다시 말해서 은거적 도학자로서의 삶을 평생의 '今日之急務'로 여기는 것 또한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활가」에서 '우활'은 정훈 자신의 삶에 대한 그 나름의 모색과 방향 및 정립을 강화하는 노선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신의 삶과 '우활'을 동일시 한 후에, 실질적인 삶의 행적과 '우활하다'의 발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반어적 어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옹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당대 현실과 대비되는 삶의 태도와 정신 세계를 선언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3.2 '우활 의식'의 의미 지향

앞의 논의에서도 드러나듯이, 우활가에서 형성된 정훈의 삶은 크게 도학적 면모와 강호에서의 은거자적 면모로 정리된다. 이러한 삶의 지향과 더불어 '우활 의식' 또한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우활 의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도학자로서의 삶에 주목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은 천성이 강직해서 뜻을 굽히지 않고 강개하였으며, 善을 보면 마치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惡을 미워하기를 원수같이 여겨 高談大論하기를 곁에 사람이 없는 듯이 하였다. 사람이 하나의 善과 하나의 재주가 있으면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여 더욱 권장하고, 불효하고 불손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불러 人倫을 일깨워줬으나, 허물을 고치는 자가 드물어 금수에 가까운 末世가 됨을 깊이 탄식하였다.²²⁾

22) 公天性剛直 不屈倜儻慷慨 見善如不及 疾惡如仇讐 高談大論 傍若無人 人有一善一藝 則好之愛之 獎勵其益 有不孝不弟 則必招其人 爲陳人倫 鮮有改過者 故深歎末世近於禽獸(『水南放翁鄭公家藏行蹟』, 『水南放翁遺稿』.)

나) 帝畀民衷 상제가 내린 성품 중에
 惟孝是篤 호도가 가장 돈독하니
 孰不稟是 누가 이를 받지 않았으리
 蔽于物欲 다만 물욕에 가리어져
 離倫失正 윤리를 저버리고 정도를 상실하여
 乃喪我天 끝내 하늘의 뜻마저 잃었네
 卓卓放翁 뛰어난도다 방옹이여
 克稱厥賢 그 어짊 어찌 다 칭송하리(後略)²³⁾

위의 기록들은 정훈이 평소 견지한 삶과 이에 대비되는 현실상을 각각 지적하고 있다. 가)에서 정훈은 타고난 성격에 걸맞게 '人倫'의 윤리적 가치를 바탕으로 선과 악을 뚜렷하게 분별·구획하고 있다. 특히 개인적 수양을 넘어서 治人, 즉 사회 현실 속에서의 실천적인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뜻과는 달리 '금수에 가까운 末世'로 진행되고 있다. 나)의 기록이 바로 이 현실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사람은 누구나 '愛親敬兄과 忠君弟長을 分內事'((II)①)로 여길 줄 아는 떳떳함, 이른바 "五常의 性稟"을 하늘로부터 부여받고 태어난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몸 삼겨나미 禽獸'((II)①)와 다른 까닭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성품이 물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윤리덕목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뜻'인 天性的 본바탕에서도 멀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淳風이 已遠호니 儉薄'((II)③)하게 된 사회가 정훈이 직면하고 있는 당대 현실이다.

따라서 정훈과 현실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때의 간극이 '우활 의식'의 맹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자신의 신념과 대비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汗漫호니 情懷'((II)③)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결국 '어리고 미친 말'((II)①), 곧 현실 비판을 하기에

23) 孝子水南放翁鄭君墓碣銘并序, 『水南放翁遺稿』.

이르는데, 「聖主中興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으 숲 虎狼이 城關의 ㄱ득흐니
 하늘이 놓다 혼들 몸을 곳게 니러서며
 짜히 두터운들 발을 편히 드릴런가
 天命을 곳게 너져 그대도록 驕泰홀샤
 天常을 모르거든 하늘을 고일소나
 邦本을 흐늘거든 百姓이 조출런가
 宮闕을 만히 덧다 몇 間의 살고마는
 無辜한 窮民을 그대도록 보첼세고
 八方 貢膳을 얼마 먹고 니블 거슬
 벉슬 프라 銀 되화 어디 두로 싸하시며
 私進上 바다드려 므어셔 다 ㅼ던고
 우히 그러커든 아래히 지자홀가
 上下 交証흐니 國體를 진일런가

이 대목은 광해조의 대북파를 비판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현실은 '여으'·'숲'·'虎狼' 등의 짐승 같은 인물들로 가득찬 조정이다. 특히 이들의 행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나는 당위적 윤리덕목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天命', '天常', '邦本' 등을 아무 거리낌 없이 어지럽히고 있는 폐륜성이고, 다른 하나는 '八方 貢膳', '銀', '私進上' 등으로 상징되는 세속적 이익만을 탐하는 물욕이 그것이다. 결국 이러한 비윤리적 세속성으로 말미암아 민심을 잃고 나아가 '國體'마저 보존하기 어려운 말세로 전락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훈은 비윤리적인 당대 현실을 사실적이면서 「東方十六年이 夷狄이 되얏더니」와 같이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현실을 혐오스럽게 여김과 동시에 그만큼 윤리를 대단히 중시했음을 시사한다. 즉 '애들은 일」(〔II〕③)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하겠다. 이에 그의 의식은 내면 지향적 세계로 옮겨가는데, 그 단초를 '月谷'²⁴⁾이라는 인물에게서 발견하

고 있다.

넛 사름 이젿 사름 耳目口鼻 ㄱ건마는
 나 혼자 엇디흐야 넛 사름을 그리논고
 이제도 넛 사름 겨시니 ㄱ 내 벗인가 흐노라

靑松으로 울흘 삼고 白雲으로 帳 두로구
 草屋 三間이 숨어 겨신 저 내 벗님
 胸中에 塵念이 업스니 그를 스랑흐노라

위의 두 시조는 '월곡'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月谷答歌 10수 중 제1수와 제4수이다. 첫 번째 시조 작품에서 정훈이 '내 벗'으로 선언할 만큼 '월곡'을 그리워하는 까닭은 그가 다른 아닌 '넛 사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넛 사름'의 구체적인 의미와 '이제도 겨시니'가 갖는 성격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시조 작품에서 '월곡'은 '靑松', '白雲' 등의 자연과 벗하면서 '胸中에 塵念'을 품지 않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草屋 三間'의 공간이 '塵念'과의 의미적 대응관계에서 물욕이 없는 세계를 뜻하는 관용적 이미지임을 상기할 때, 그의 의식은 '塵念'마저 없는 '無慾'의 경지로 풀이된다. 게다가 '숨어' 있음은 '울흘 삼고'와 '帳 두로구'의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삶터가 첩첩산중에 자리하고 있어 심적·신체적으로 '人間是非」(〔II〕②)와 차단된 상태임을 보여준다.

24) '月谷'이라는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그가 누구인지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이다. 한편 이상원은 사족층의 분화와 정훈의 시가」(신영명·우응순 외,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에서 『옥경현유고』에 실린 〈悼月谷丁汝活〉과 〈題月谷書堂〉을 바탕으로 월곡을 '丁汝活'로 추정하였고, 나정순은 17세기 초의 사상적 전개와 정훈의 시조」(『時調學論叢』 第27輯, 韓國時調學會, 2007.)에서 『창의유목』, 『월곡실기』 등을 기반으로 임란시 대구 지방 최고의 의병장이었던 '禹拜善'으로 추정할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넷 사람'은 인세를 잇은 은자로 정의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제도 겨시니'의 표현이다. 즉 과거가 아닌 현재에 존재하는 인물임과 동시에 '耳目口鼻 窺건마는'에서도 드러나듯이, 외형이 아닌 내면의 심적 세계가 강화된 인물이어야 한다. 이로 보건대, '넷 사람'은 결국 정신적으로 우월한 현세의 은자로 귀결된다. 그리고 '내 벗'이라는 선언은 그에 대한 동경과 함께 심리적 동일화를 꾀하는 기능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월곡'에 견준으로써 자신 또한 우월함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모는 「龍秋遊詠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蕭洒ᄃᆞᆫ 清飈를 슬커지 뵈은 後에
五六 冠童으로 吟詠코 도라오니
넷 사람 氣像을 미출가 못 미출가
萬古에 스쳐보니 어제론 덧 흐다마는
洒落ᄃᆞᆫ 風采를 쏘에나 어더 불가
넷 사람 못 보거든 이젧 사람 어이 알고
이 몸이 느껴 나니 傷懷도 쓸디 업다
山鳥 山花를 내 버즐 삼아 두고
一區 風烟에 삼긴 대로 노는 몸이
功名을 思念ᄃᆞᆫ며 貧賤을 설위홀가
簞食 瓢飲으로 내 分만 안 과ᄃᆞᆫ니 日月도 閑暇홀사
이 溪山 景物을 슬토록 겨노리고
百年 光陰을 노리다가 마로리라
아희야 松關을 ㄹ리와라 世上 알가 흐노라

작품의 마지막 대목으로서, 이른바 曾點의 기상²⁵⁾을 의방한 후의 진술이다. 먼저 자신을 '넷 사람 氣像'에 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기상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의방한다고 해서 미칠 수 있는 '洒落ᄃᆞᆫ 風采'가 아니다. 즉 '萬里에 눈 쓰고 太古에 뜻줄'([II]③) 두는 진정성 없이, 단지 '萬古에 스쳐보'는

25)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先進』, 『論語』 第十一.)

홍내만으로는 '솜의도 비잔'([II]③)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때어난 시대 또한 혼탁하므로 '傷懷'가 부질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 만큼 후술되고 있는 내용은 운명론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삶과 태도는 특별한 의미로 부각되고 있어 주목된다. 무엇보다 '貧賤을 설위홀가'의 표현이 요긴하다. 이는 '功名'을 잇는 것보다 한층 더 나아간 내면의 성찰로서, '貧賤'마저 '내 分'으로 여기는 지극한 자족적 심상이다. 이 표현 이후에야 비로소 '日月도 閑暇'함을 발견하고 있는 모습이 이를 반증한다. 아울러 '溪山 景物'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그 강호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 역시 자족적 심상에 있다.

이와 같이 전·후술 사이에 의식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넷 사람'의 기상에 도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말하자면 과거에서 현재로, 외형에서 내면으로의 의식적 지향으로서, 앞서 지적한 현세의 은자적 기상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구절에서, 세상과의 단절은 자신의 은자적 삶의 강화함과 동시에 이곳에서의 자족감을 우회적으로 선언한 표현이기 때문이다.²⁶⁾ 한편 이 구절을 「우활가」의 마지막 구절에 적용하면, '醉ᄃᆞᆫ여 내 迂濶 닛다' 역시 반어적인 의미로서의 표현으로 다가온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정훈의 '우활 의식'은 정신적·이념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한, 현실 비판과 은자적 기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의식은 대사회적 측면에서 개인화·내면화의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자신이 영위하는 삶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실세계와 극명하게 구분되는 삶의 지향이요, 의식적 소산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결국 정훈의 '우활 의식'은 자신과 현실의 차이를 관조하는 통찰력과 분별력에서 비롯된 정신적 담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26) "이는 자신의 풍류를 자랑하고자 하는 정서적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문을 활짝 열어 공개적으로 드러내 놓지는 않지만, 은근 슬쩍 내비치는 소극적인 자랑이다." (이승남, 앞의 글, 206쪽.)

4. 마무리

지금까지의 논의는 정훈의 '우활 의식'을 다시금 조명하기 위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 재해석의 가능성을 시험적으로 검토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우활가」의 해석 기반인 '우활'의 의미와 그 쓰임 양상에 관심을 갖고, '우활 의식'의 단면을 고찰해 본 것이다. 그러나 이 용어 하나만으로 정훈의 의식세계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의 논의가 절실하다. 다만 성글게나마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활'이라는 용어는 크게 이중의 의미적 층위에서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세상일에 영합하지 못하는 상대방의 언행과 마음가짐을 조롱할 때 즐겨 쓰는 말이다. 그러나 이 용어가 발화자 자신으로 주체화되었을 때에는 반어적으로 전환되면서, 그 의미 또한 세상에 대한 정신적 우월감으로 굴절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정훈은 바로 이러한 의미와 쓰임을 십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진술하고 있다. 즉 자신의 삶과 '우활'을 동의적 관계로 제시한 후, 실제 행적과 '우활'의 발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반어적 어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당대 현실과 대비되는 삶의 태도와 정신적·이념적 우월성을 선언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분명 당대 현실과 구분되는 의식적 소산이다. 이에 자신과 현실의 차이를 관조하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낳은 정신적 담론으로 정훈의 '우활 의식'을 명명하였다.

■ 참고문헌

- 『論語』, 『史記』
 『三綱行實圖』, 『漢清文鑑』
 『仙源遺稿』
 『水南放翁遺稿』(숭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習齋集』
 『靑莊館全書』
-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주)어문각, 1992.
 강경호, 「정훈 시가에 반영된 현실 인식과 문학적 형상 재고」, 『韓民族語文學』 第49輯, 韓民族語文學會, 2006.
 권순희, 「17세기 남원지방 재지사족의 동향과 정훈의 시가」, 『어문논집』 39, 민족어문학회, 1999.
 金文基, 「鄭勳의 〈憂喜國事歌〉 고찰」, 『국어교육연구』 제31집, 국어교육학회, 1999.
 나정순, 「17세기 초의 사상적 전개와 정훈의 시조」, 『時調學論叢』 第27輯, 韓國時調學會, 2007.
 류속영, 「鄭勳 문학의 현실적 토대와 작가의식」, 『國語國文學』 第35輯, 國語國文學會, 1998.
 朴堯順, 「鄭勳과 그의 詩歌攷」, 『崇田語文學』 제2집, 崇田大學校 國語國文學會, 1973.
 양희찬, 「意味의 屈折과 複層, 그리고 構造」, 윤영욱 외, 『한국시가 넓혀 읽기』, 문창사, 2006.
 이상원, 「정훈 시조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11집, 우리어문학회, 1997.
 , 「사족층의 분화와 정훈의 시가」, 신영명·우응순 외,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이승남, 「17세기 강호가사의 전환기적 서정-정훈의 〈옹추유영가〉와 〈수남방옹가〉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28집, 우리어문학회, 2007.
 최상은, 「鄭勳 歌辭에 나타난 가문의식과 문학적 형상」, 『韓民族語文學』 第45輯, 韓民族語文學會, 2004.

河聲來, 『歌辭文學의 새 巨峰 - 鄭勳의 〈水南放翁歌〉 解題 및 評價』, 『文學思想』 8, 文學思想社, 1973, 5월호.

한창훈, 『17세기 鄉班階層 詩歌의 形成 : 朴仁老·鄭勳을 중심으로』, 『시가 교육의 가치론』, 월인, 2001.

〈투고일 : 2008. 6. 30. 심사일 : 2008. 7. 17. 심사완료일 : 2008. 8. 12.〉

〈Abstract〉

Reconsideration on Jeong-Hun's 'Consciousness of U-hwal'

Oh, Sun-ju

In "U-hwalga" of Jeong-Hun's Kasa works the term 'U-hwal' appears total 19 times and the distribution of its use interest to appear all over the whole of life. That is to say this study notice in view of this that examine the senses and practical use of 'U-hwal' and rethink 'Consciousness of U-hwal' on the basis of its. Consequently three senses is as a negative meaning, they are inflected to a positive meaning in case of the position of enonciateur. "U-hwalga" depart not largely from the significant category as well. Precisely he identified his life with the senses of 'U-hwal' and then, positively affirmed his life through ironical expression to begin from between a track of virtual life and the speaking of 'U-hwal'. In other words, Jeong-Hun used the term 'U-hwal' that reinforced the thesis, course and searching for his life. This use of it's term resulted in an expression both a declaration of the ideological and spiritual superiority and an attitude of life as opposed to actuality in the present age. Therefore Consciousness of U-hwal is a discourse that arise from Jeong-Hun's discernment to contemplate the difference of the real wold from his own self.

Key words : Jeong-Hun, U-hwal Consciousness, meaning inflection, ironical expression, superiority, discernment